

2018년 3월 30일

csf@kiep.go.kr

개혁개방 40년간 중국 도시의 흥망사



중국경제 “붕괴론”이 주기적으로 제기되었으나,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한 현재 중국 경제는 도시화 발전 모형에 기초하여 번영을 지속하고 있음.

1. 도시 성장의 또 다른 이름 : 경제개발정책의 산물

- 개혁개방 이후 40년 동안 다양한 경제개발정책이 추진되어 왔고, 각 도시들의 흥망성쇠는 이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음.
 - 개혁개방 이전에도 상하이(上海), 랴오닝(辽宁), 산둥(山东), 장쑤(江苏), 광둥(广东), 푸젠(福建), 저장(浙江) 등 연해지역의 경제가 내륙지역에 비해 발전해 있었음.
 - 개혁개방 이후에도 연해지역은 경제특구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음.
 - 80년대에는 선전(深圳)을 필두로 한 주강(珠江)삼각주 지역의 연해 도시가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90년대에는 상하이 주변의 장강(长江)삼각주 도시가, 2000년대에는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과 중원(中原)지역이, 2010년 이후에는 서부지역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과거 중공업과 군수공업으로 번성했던 동북지역은 개혁개방 이후 지속적인 쇠퇴를 거듭
- (省별 GDP 순위) 경제개발정책의 혜택은 주로 동남부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2017년 푸젠(23위→12위), 저장(12위→4위), 광둥(5위→1위)의 GDP 순위가 1978년 대비 크게 상승한 반면, 동북지역의 순위는 크게 하락

- 반면 랴오닝(辽宁)의 GDP 순위는 1978년 3위에서 2017년 14위로, 헤이룽장(黑龙江)은 8위에서 21위로, 산시(山西)는 15위에서 24위로 하락했으며 경제 대도시인 상하이 또한 1위에서 11위로 하락
- 장쑤와 산둥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상위권을 유지

□ (省별 경제성장률 순위) GDP 성장률 상위 5대 지역 중 4곳이 동부연해지역으로 동북 및 서북지역과 확연한 차이가 나타남(표 1 참조).

- 푸젠과 저장에 소재하는 모든 시의 평균 가처분소득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
- 구이저우(贵州)는 개혁개방 이후 오랫동안 낙후지역이었으나,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한 최근 3년간 급격히 성장, 특히 구이양(贵阳)시의 빅데이터 및 연관 산업 투자가 1,560억 위안에 달함.
 - 2016년 기준, 고급 인재가 71만 명에 달하며 2013~16년 기간 동안 신규 유입된 과학기술 인력 중 40%가 빅데이터 관련 산업에 종사함.

표 1. 개혁개방 40년간 중국 지역(省)별 경제규모 변화

(단위 : 억 위안)

순위	지역(省)	1978년 GDP(A)	2017년 GDP(B)	성장 배수(B/A)
1	푸젠(福建)	273	73,951	270.9
2	저장(浙江)	331	83,538	252.4
3	네이멍구(内蒙古)	318	74,069	232.9
4	장쑤(江苏)	430	59,259	221.5
5	산둥(山东)	316	67,706	214.3
6	충칭(重庆)	287	57,902	201.7
7	광둥(广东)	370	72,787	196.7
8	구이저우(贵州)	175	33,127	189.3
9	허난(河南)	232	42,247	182.1
10	산시(山西)	291	50,359	173.2

자료: 凤凰财经

□ (도시별 GDP 순위) 1978년 상위 20위 도시 중 남부와 북부 도시의 비중이 비슷했으나 2017년에는 남부 도시의 비중(80%)이 압도적으로, 남부지역 도시들의 발전이 두드러짐(표 2 참조).

- 상하이와 베이징은 과학기술 및 금융 산업이 발달한 대표 도시로, 정책적 혜택 등으로 40년간 국제 도시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음.
- 선전은 “개혁개방의 수혜자”로, 1978년에는 광저우시의 바오안현(宝安县)에 불과했으나, 10년 뒤인 1988년 도시 GDP 순위 20위권에 진입
 - 개혁개방 이후 최초의 경제특구인 선전은 해외자본에 의존한 노동집약형 산업 중심으로 성장했으나 최근에는 인터넷 산업, 인공지능, 신소재, 바이오 등 첨단산업이 발전을 주도
- 톈진과 보하이(渤海)만의 공업도시들은 2017년 충칭에 추월당했음.
- 창춘(长春), 선양(沈阳), 하얼빈(哈尔滨), 다롄(大连) 등 동북 4대 공업도시들은 동부연해 도시들과 달리 하향추세이며 인구의 외지유출이 두드러짐.

- 1978년 동북 4대 공업도시들은 모두 10위권 안에 드는 발전지역이었으나, 1998년에는 10위권 밖으로, 2017년에는 20위권 밖으로까지 물러남.
- 일본과 소련의 진출에 기반하여 중공업 위주로 발전했던 동북지역은 1970~'80년대 중소관계가 악화된 이후 쇠퇴하기 시작하여 90년대 이후에는 쇠퇴 추세가 두드러짐.
- 동북지역 외지 유출인구의 45%는 비농업인구, 25%는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계층이며 20대부터 50~60대 노년층까지 전 세대별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어 농업인구, 저학력 계층, 젊은 층 중심의 일반적인 도시화 추세와는 구별되는 특징임.

표 2. 개혁개방 40년간 중국 도시의 GDP 순위 변화

(단위 : 억 위안)

순위	1978	1988	1998	2008	2018
1	상하이(上海) 272.8	상하이(上海) 648.3	상하이(上海) 3,801	상하이(上海) 14,069	상하이(上海) 30,133
2	베이징(北京) 108.8	베이징(北京) 410.2	베이징(北京) 2,376	베이징(北京) 11,115	베이징(北京) 28,000
3	톈진(天津) 82.7	충칭(重庆) 261.2	광저우(广州) 1,893	광저우(广州) 8,287	선전(深圳) 22,438
4	충칭(重庆) 67.3	톈진(天津) 259.7	충칭(重庆) 1,602	선전(深圳) 7,786	광저우(广州) 21,503
5	창춘(长春) 51.2	광저우(广州) 240.0	선전(深圳) 1,534	쑤저우(苏州) 7,070	충칭(重庆) 19,500
6	하얼빈(哈尔滨) 45.7	선양(沈阳) 194.0	톈진(天津) 1,374	톈진(天津) 6,719	톈진(天津) 18,595
7	선양(沈阳) 44.0	쑤저우(苏州) 152.5	쑤저우(苏州) 1,250	충칭(重庆) 5,793	쑤저우(苏州) 17,319
8	광저우(广州) 43.1	우한(武汉) 156.4	항저우(杭州) 1,135	항저우(杭州) 4,781	청두(成都) 13,889
9	다롄(大连) 42.0	항저우(杭州) 152.5	청두(成都) 1,102	우시(无锡) 4,460	우한(武汉) 13,410
10	우한(武汉) 39.9	다롄(大连) 151.0	우시(无锡) 1,052	칭다오(青岛) 4,401	항저우(杭州) 12,556
11	칭다오(青岛) 38.6	청두(成都) 146.4	우한(武汉) 1,002	포산(佛山) 4,378	난징(南京) 11,751
12	청두(成都) 35.9	칭다오(青岛) 139.0	닝보(宁波) 973	닝보(宁波) 3,964	칭다오(青岛) 11,037
13	난징(南京) 34.8	우시(无锡) 133.7	선양(沈阳) 939	우한(武汉) 3,960	창사(长沙) 10,535
14	안산(鞍山) 32.0	난징(南京) 131.3	다롄(大连) 928	청두(成都) 3,901	우시(无锡) 10,511
15	쑤저우(苏州) 31.9	닝보(宁波) 118.6	칭다오(青岛) 901	선양(沈阳) 3,860	닝보(宁波) 9,846
16	스자좡(石家庄) 29.9	지난(济南) 114.2	난징(南京) 850	다롄(大连) 3,858	포산(佛山) 9,549
17	난통(南通) 29.4	창춘(长春) 94.1	하얼빈(哈尔滨) 816	난징(南京) 3,814	정저우(郑州) 9,130
18	탕산(唐山) 29.1	선전(深圳) 86.9	지난(济南) 802	둥관(东莞) 3,702	난통(南通) 7,734
19	항저우(杭州) 28.4		포산(佛山) 782	옌타이(烟台) 3,409	둥관(东莞) 5,782
20	옌타이(烟台) 25.8		둥관(东莞) 557	지난(济南) 3,017	취안저우(泉州) 7,548

자료: 凤凰财经

2. 성장축의 중서부 지역 이동

- (중서부 도시의 발전) ·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2008년 금융위기에 이르기까지 양적 완화에 의해 대부분의 도시들이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연해지역의 물가 및 생산관리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내륙으로 이동하는 기업 및 인구가 증가
- 동부 연해지역의 주택가격을 비롯한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중서부지역 내륙 출신의 노동자들이 고향으로 회귀하였으며, 기업들 또한 높아진 생산관리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내륙으로 이동하게 되었음.
 - 사면대학 경제학과 덩창파(丁长发) 교수는 동부연해지역의 생활 물가가 매우 높아, 임금수준이 대단히 높지 않으면 중서부 지역의 고향에서 취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밝힘.
 - 2013년 이후 안후이(安徽), 후베이(湖北), 쓰촨(四川)은 인구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광둥, 푸젠, 장쑤 등에서 유출된 인구임.
 - 상위 10위권 도시 중 절반이 우한(武汉), 충칭(重庆), 청두(成都)와 같은 중서부지역의 도시임.
 - 청두는 12.5규획기간(2011~15년) 동안 관광산업 매출규모가 2배 이상(1,050→3,000억 위안), 외국인 관광객 수가 3배(105→300만 명) 증가했을 정도로 관광산업이 발전
 - 충칭은 전통적인 중공업 도시로 자동차 제조업이 대표 산업이었으나, 12.5규획기간 전자산업, 장비제조업, 화학공업, 신소재 공업 등의 신규 산업을 육성하면서 산업구조가 변화
- (3, 4선 도시의 굴기) · 최근 10년 간 성장률 상위 10대 도시 중 6개가 3, 4선 도시일 정도로 중소도시의 발전속도가 매우 빠름.
-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1선 도시는 도시 순위에서는 여전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나, 성장률은 안정세에 접어들었으며, 최근 고속 성장하는 도시들은 대부분 3, 4선 도시
 - 최근 10년 간 GDP 성장률 상위 30위권 도시 중 2선 도시가 10개, 3선 도시가 15개, 4선 도시가 4개로 3, 4선 도시의 비중이 압도적임.
 - 3, 4선 도시의 성장은 ‘신형도시화 정책’에 따른 중소도시의 육성과 ‘일대일로 전략’에 따른 내륙 거점도시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이 집적된 효과

표 3. 최근 10년 간 GDP 성장 상위 30대 도시

(단위 : 억 위안, %)

순위	도시	등급	2008년	2017년	연평균성장률	GDP 증가폭	증가폭 순위
1	구이양(贵阳)	3선	811	3,518	33.4	2,707	45
2	허페이(合肥)	2선 약소	1,664	7,213	33.4	5,549	17
3	쑤이(遵义)	4선	655	2,777	32.4	2,122	63
4	우후(芜湖)	3선	746	3,065	31.1	2,319	57
5	량양(襄阳)	3선	1,002	4,064	30.6	3,062	39
6	쑤치엔(宿迁)	4선	675	2,610	28.7	1,935	70
7	충칭(重庆)	2선 발전	5,096	19,500	28.3	14,404	4
8	이창(宜昌)	3선	1,026	3,857	27.6	2,831	42
9	화이안(淮安)	3선	915	3,387	27.0	2,472	52

표 3. 최근 10년 간 GDP 성장 상위 30대 도시 (계속)

(단위 : 억 위안, %)

순위	도시	등급	2008년	2017년	연평균성장률	GDP 증가폭	증가폭 순위
10	청두(成都)	2선 중등	3,901	13,889	25.6	9,988	8
11	장저우(漳州)	3선	1,002	3,563	25.6	2,561	47
12	롄윈강(连云港)	4선	750	2,640	25.2	1,890	72
13	창사(长沙)	2선 중등	300	10,535	25.1	7,535	12
14	인촨(银川)	3선	514	1,803	25.1	1,289	97
15	지우장(九江)	4선	700	2,413	24.5	1,713	81
16	허저(菏泽)	3선	821	2,820	24.4	1,999	69
17	시안(西安)	2선 중등	2,190	7,469	24.1	5,279	18
18	타이저우(泰州)	3선	1,394	4,744	24.0	3,350	36
19	우한(武汉)	2선 중등	3,960	13,410	23.9	9,450	9
20	위린(榆林)	3선	1,008	3,318	22.9	2,310	58
21	취저우(徐州)	3선	2,007	6,605	22.9	4,598	23
22	양저우(扬州)	3선	1,573	5,064	22.2	3,491	32
23	옌청(盐城)	3선	1,604	5,082	21.7	3,478	34
24	하이커우(海口)	3선	443	1,390	21.4	947	98
25	형양(衡阳)	-	1,000	3,132	21.3	2,132	62
26	난닝(南宁)	2선 약소	1,316	4,118	21.3	2,802	43
27	푸저우(福州)	2선 중등	2,284	7,104	21.1	4,820	22
28	난징(南京)	2선 발전	3,775	11,715	21.0	7,940	10
29	창더(常德)	3선	1,050	3,238	20.8	2,188	60
30	정저우(郑州)	2선 중등	3,004	9,260	20.8	6,256	14

자료: 凤凰财政

- 대량의 저렴한 노동력에 의존하는 인구 보너스 시대의 종말, 동부연해지역 과잉집중에 따른 집적 불경제 현상의 출현, 중서부 내륙 발전정책의 실행에 따라, 중국 도시의 성장축이 중서부 내륙지역으로 점차 이동
- 광둥성 개제연구소 펑펑(彭澎) 부회장은 중서부 내륙지역 2선도시의 성장은 과밀화된 동부 연해지역 1선 도시의 성장압력을 해소하는 동시에 3, 4선급 위성도시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국의 도시화 및 경제 발전에 미치는 효과가 더욱 지대할 것이라고 평가 CSF

참고자료

- 「中西部省份人口持续回流，区域龙头城市发展空间大」,『第一财经』, 2018-03-25.
- 「中国城市格局四十年沉浮录」,『凤凰财政』, 2018-03-14.
- 「东北衰落的原因是什么？」,『人民日报』, 2018-01-27.
- 「加快国家中心城市建设：郑州在腾飞 中原在崛起」,『人民日报』, 2018-01-27.
- 「2018 中国城市等级划分：1,2,3,4 线城市名单」,『马蜂窝』, 2018-01-23.
- 「成都旅游五年发展铸就辉煌」,『人民日报』, 2017-10-27.
- 「重庆两大支柱产业“切换”：电子有望超越汽车成新领头羊」,『21世纪经济报道』, 2017-5-24.

(자료정리: KIEP 북경사무소)